이우성 "성실함으로 잡은 기회…더 높은 곳에서 뛰고 싶다"

전반기 0.289·5홈런·24타점
"매일이 선배들에 배움의 시간"
김종국 "야수 중 가장 기량 발전"

KIA 이우성은 나성범이 부상으로 빠진 외야에서 전반기 좋은 활약을 하며 김종국 감독이 꼽은 '야수진의 기량 발전상' 주인공이 됐다. 사진은 이우성이 지난 6월 18일 NC와의 홈경기에서 9회말 동점 적시 2루타를 기록한 뒤 세리머리를 하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성실함으로 기회를 잡은 이우성이 더 높은 곳에서 뛰는 상상을 하며 후반기를 기다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이우성의 2023시즌 시작은 미약했다. 3년 만에 진행된 해외 스프링캠프 명단에 이름이 빠지면서 이우성은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시즌을 준비했다.

애리조나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던 이우성은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았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2차 캠프에 콜업된 이우성은 본격적인 엔트리 경쟁에 뛰어들었고, 전반기가 끝난 뒤에는 김종국 감독이 꼽은 '야수 중 가장 기량이 발전한 선수'가 됐다. 프로 11년 만에 감독 추천 선수로 첫 올스타전 무대도 다녀왔다.

이우성은 나성범의 부상 변수가 발생한 전반기 외야 한 자리에서 역할을 하면서 0.289의 타율로 5개의 홈런과 24타점도 만들었다. 주루와 수비에서도 이우성은 온 힘을 쏟았다. 열심히 뛰면서 좋은 수비도 선보였고, 한루라도 더 가기 위해 공격적으로 달리면서 상대를 흔들기도 했다.

이우성은 "1군 캠프에 떨어졌는데 나이가 어렸더라면 생각이 많았을 것이다. 어디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코치님들, 스태프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셨다. 1군 캠프에서도 코치님들이 신경 많이 써주셨다"며 "야구를 잘했던 선수가 아니라 캠프 참여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다.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야구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경험이 올 시즌 좋은 자산이 됐다.

이우성은 "지난해 감독님이 계속 1군에서 기회를 주셨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팀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경기 전날 상대 투수들 공부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상황에 나가도 대처가 잘 됐다. 무의미하게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렸다"고 언급했다.

성실함으로 코칭스태프에게 좋은 점수를 받은 이우성이지만 '실패한 성실함'이 야구 시야를 넓히는 교훈이 되기도 했다.

이우성은 "아직 많이 모자라다. 주위에서 코치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머릿속에 담아두고 하는 성격이라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범호 코치님이 2군 총괄코치님으로 계실 때 35도가 넘어가는 날에도 계속 공도 치고 노력을 해봤는데 성적이 좋지 못했다. 거기에서 느낀 게 타격 결과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면 조금 쉬고, 좋으면 좋은 대로 즐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수비는 내가 열심히 뛰면 잡을 수 있는데, 타격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투수가 좋은 볼 던지면 내가 운이 없는 것이고, 실투가 들어와서 똑같은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면 운이 좋은 것이다"며 "생각을 바꿨다. '결과 못 내면, 삼진 당하면 2군 가겠지' 이런 생각은 안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노력을 줄인 것은 아니다.

마음을 바꾸면서 상대와의 싸움에 여유를 더한 이우성은 "운이 좋으려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우성은 그라운드에서의 시간도 그냥 보내지 않는다. 그에게는 매일 배움의 시간이다.

나성범의 부상 공백으로 기회를 얻고, 입지를 넓힌 이우성이지만 늘 "성범이 형이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고 언급했었다. 팀 승리가 우선이고,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이우성은 "강한 팀은 좋은 선배들을 보면서 배운다. 위에 성범이 형, 형우 형, 선빈이 형이 지금처럼 잘해주면 어린 선수들도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안타를 만든다. 선배들이 치면 같이 따라간다. 그래서 성범이 형이 빨리 돌아와서 많이 이겨야 우리 어린 선수들이 야구가 는다고 생각했다. 팀이 더 이겨서나 포함해서 어린 선수들이 야구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 "남은 시즌 부상 안 당하는 게 목표다. 더 높은 곳에서 그라운드에 한 번 나가보는 것도 목표다. 팀에 민폐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카를로스 알카라스(1위·스페인)가 1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윔블던 테니스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를 3-2로 이기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테니스 알카라스 시대 열렸다

조코비치 꺾고 윔블던 우승

카를로스 알카라스(1위·스페인)가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와 '세기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생애 첫 윔블던 테니스대회(총상금 4470만 파운드·약 743억원)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알카라스는 1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조코비치를 4시간 42분 만에 3-2(1-6 7-6〈8-6〉 6-1 3-6 6-4)로 제압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역대 가장 어린 나이에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는 등 차세대 주자 중 가장 돋보이는 성적으로 주목받아온 20세 알카라스는 메이저 대회 통산 최다 23회 우승 기록을 보유한 '최강' 조코비치를 메이저 결승 무대에서 거꾸러뜨리며 남자 테니스 '새 황제'로 등극했다.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온 남자 테니스 '빅3'의 시대를 끝내는 사건이기도 하다.

조코비치와 라파엘 나달(136위·스페인), 로저 페더러(은퇴·스위스)의 빅3, 그리고 영국 출신으로 윔블던에 강한 모습(2회 우승)을 보여줬으며 때로는 이들과 함께 '빅4'로 까지 묶였던 앤디 머리(40위·영국)가 아닌 선수가 윔블던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것은 2002년 레이턴 휴잇(은퇴·호주) 이후 무려 21년 만의 일이다.

알카라스는 조코비치와 상대 전적에서 2승 1패로 앞서나갔다.

올해 프랑스오픈 준결승에서 당한 1-3 패배를 되갚았다.

지난해 US오픈에서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이뤄낸 알카라스는 이날 승리로 통산 메이저 우승 횟수를 2회로 늘렸다.

이날 승리로 알카라스는 17일 발표되는 주간 랭킹에서 4주째 1위를 지키게 됐다. 졌다면 조코비치에게 1위를 내주는 상황이었다.

알카라스가 받는 우승 상금은 235만 파운드(약 39억1000만원)다.

조코비치는 윔블던 5연패와 통산 8번째 우승이 불발됐다.

만 36세인 조코비치가 새로 쓸 수 있었던 윔블던 남자 단식 최다(8회), 최고령(35세 11개월 8일) 우승 기록 모두 당분간은 페더러의 것으로 남는다.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 선두 경남에 2-0 승리

K리그2 2023 21라운드

전남드래곤즈가 선두 경남FC를 상대로 승점 3점을 만들었다.

전남은 지난 16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3 21라운드 경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하남과 발디비아의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하남과 발디비아는 서로의 골을 도우면서 1골 1도움의 활약을 펼쳤다. 특히 올 시즌 경남에서 전남으로 이적한 하남은 친정을 상대로 맹활약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전반 3분 만에 전남의 골이 기록됐다.

코너킥 상황에서 발디비아가 키커로 나서 왼쪽에서 공을 띄웠고, 문전에 있던 하남이 뛰어올라 머리로 공을 떨궜다. 바운드 된 공은 골키퍼 고동민을 지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8분 하남이 이번에는 오른발로 두 번째 골 사냥에 나섰지만 골키퍼의 좋은 수비에 막혔다.

전반 10분 경남 글레이손의 헤더가 전남 골대를 갈랐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전남이 한숨 돌렸다.

전반 31분 발디비아가 골 맛을 봤다.

왼쪽에서 미키치가 중앙으로 패스를 했고, 페널티박스에서 공을 잡은 하남이 수비진의 견제 없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발디비아를 향해 공을 보냈다.

공을 잡은 발디비아가 침착하게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면서 전남이 2-0 리드를 잡았다. 이 골로 발디비아는 시즌 9호골에 성공하면서 10골을 기록 중인 득점 1위 글레이손을 1골 차로 추격하게 됐다.

전반전 기싸움에서 앞선 전남은 남은 시간을 실점 없이 지키면서 선두 경남을 상대로 값진 승리를 장식했다. 이날 승리로 전남의 올 시즌 전적은 8승 4무 8패(승점 28)가 됐고, 7위에 자리했다.

6연승에 도전했던 경남은 전남의 공세에 막히면서 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경남이 패배는 기록했지만 10승 6무 3패(승점 36)의 전적으로 1위는 지켰다.

최근 매서워진 창으로 7경기에서 14골을 넣으면서,4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전남은 상승세를 이어 안방에서 연승 잇기에 나선다.

전남은 19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안산그리너스를 상대로 22라운드 홈경기를 갖고 중위권 도약을 노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경주, PGA 시니어투어 메이저대회 3위

콜릭 컴패니스 챔피언십

최경주(53)가 미국프로골프(PGA) 시니어투어 메이저대회에서 3위에 올랐다.

최경주는 17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아크론의 파이어스톤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챔피언스 콜릭 컴패니스 챔피언십(총상금 35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69타를 쳤다.

4라운드 합계 7언더파 273타를 적어낸 최경주는 우승자 스티브 스트리커(미국)에게 4타차, 2위 데이비드 톰스(미국)에게 1타차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어니 엘스(남아프리카공화국)가 최경주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고, 최고령 우승과 최다승 기록 보유자 베른하르트 랑거(독일)는 6위(5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쳤다.

3위는 올해 최경주의 최고 성적이다. 지난 3월 호그 클래식 공동 7위 이후 두 번째 톱10 입상이다.

PGA 투어 챔피언스 메이저대회 최고 성적이기도 하다. 종전에는 작년 시니어 PGA 챔피언십 공동 4위가 최고였다.

양용은은 공동 13위(이븐파 280타)로 대회를 마감했다.

콜릭 컴패니스 챔피언십은 PGA 투어 챔피언스의 메이저대회다. 우승자에게는 내년 PGA 투어 간판 대회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출전권을 부여한다.

이날 4언더파 66타를 때려 톰스의 추격을 3타차로 따돌린 스트리커는 시니어 무대 16번째 우승을 거뒀다.

그는 올해 PGA 투어 챔피언스에서 5승 가운데 3승을 모두 메이저대회에서 따냈다. /연합뉴스

세계랭킹 3위 리디아 고, 룰 착각에 7벌타

프리퍼드 라이 위반

여자골프 세계랭킹 3위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무려 19승을 올린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골프 규칙을 착각해 7벌타를 받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리디아 고는 17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LPGA투어 다나 오픈(총상금 175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7오버파 78타를 적어냈다.

리디아 고는 이날 이븐파 71타를 쳤지만, 벌타가 무려 7타가 부과돼 이렇게 높은 타수를 제출해야 했다.

리디아 고가 7벌타를 받게 된 것은 '프리퍼드 라이' 규칙을 잘못 알고 경기에 나선 때문이었다.

비가 많이 와서 코스가 물러지자 경기위원회는 최종 라운드에서도 '프리퍼드 라이'를 적용했다.

'프리퍼드 라이'는 페어웨이에서 볼을 집어 올린 뒤 닦아서 일정 거리 옆에 내려놓고 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코스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임시로 적용한다.

그런데 이날 경기위원회는 1번 홀(파4)과 10번 홀(파4)에서만 '프리퍼드 라이'를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리디아 고는 모든 홀에서 '프리퍼드 라이'가 적용되는 줄 착각하고선 3번(파4), 7번(파5), 9번 홀(파4)에서도 볼을 집어 올려서 닦은 뒤 내려놓고 쳤다. 11번 홀(파4)에서도 볼을 집어 올렸던 리디아 고는 그제야 경기위원을 불렀다.

달려온 경기위원은 리디아 고가 3, 7, 9번 홀에서 무단으로 볼을 집어 올리고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곳에 놓고서 경기한 사실을 듣고 각각 2벌타씩을 부과했다.

3번 홀 파, 7번 홀 파, 9번 홀 보기는 각각 더블보기, 더블보기, 그리고 트리플보기로 바뀌었다.

졸지에 7타가 더해진 리디아 고는 4라운드 합계 성적이 1오버파 285타가 되면서 공동 65위로 추락했다. /연합뉴스